

## OMC2000 온누리사역축제

###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 하용조 목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이상, 꿈, 비전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또 꾸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그림을 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천년에 그런 교회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천년 전에 있었던 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조직은 다 사라지지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대를 절망이라고 말하죠?

이 절망의 시대에 살고 우리에게 교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육의 대안인가? 정치의 대안인가? 경제의 대안인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경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 **이상적 교회 1 - 성령께서 친히 목회하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어떤 교회가 희망인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불멸하는 교회인가?

첫째가 성령께서 친히 목회하는 교회, 이끌어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 **이상적 교회 2 - 성령 받은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성령받은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단독 플레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꽃이 피듯이

들에 가면 꽃이 피는데 한송이만 피지 않아요. 들에 그 수많은 꽃들이 장관을 이루면서 꽃을 피듯이 모든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꽃 피워주는 사람이예요

성도들에게 그 은사대로 하나님주신 축복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름이 되고

밀거름이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서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내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가 되고 꽃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평신도들이, 성령받은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곳곳에서 찬송 소리를  
내고 기도소리를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때 세상은 변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 **이상적 교회 3 -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인가?

오늘 성경대로 보면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음식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비전을 먹고 삽니다 사람에게 비전이 없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비전이 없는 사회는 동물적인 사회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비전이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는 계속 바뀌어질 거예요 사람은 계속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하나님의 비전과 그 Key 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Key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된 그  
인류를 구원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온 인간, 세상에게 가지신 하나의 기대, 하나의 꿈, 하나의 희망,

하나님의 행동은 뭐예요? 구원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구원사예요 창조사이지만 동시에 구원이 있죠. 구원사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라는 각도에서 보면 잘보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점을 한번도 흐려본 일이 없고 이 초점을 버리신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구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 **예수님의 비전 1 -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였을까?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였을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3년, 준비, 그의 삶 그의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십자가예요. 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지시러 오셨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유혹이 있었지만 다 뿌리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한발자욱 한발자욱,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편하고 쉽고 좋은 것이 아니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가 피할 방법이 없냐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의 꿈이였습니다.

신약 사복음서의 해석은 바로 십자가라는 정점에 있습니다

### **예수님의 비전 2 -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꿈이 또 하나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꿈이였고

또 하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꿈이였어요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십자가는 지셨지만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성령이 다시 오실 때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두가지로 요약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 **예수님의 비전 3 - 성령을 보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또 비전중의 하나는 성령을 보내는 것이였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죠? 성령

### **성령님의 비전**

성령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비전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는 것이였고

그렇다면 성령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교회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쪽으로 너무 오용하면 안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충만함도 있고 다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비전은 성령의 비전은 모든 영혼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는데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는데 있다 하는 것이죠

## 교회의 비전

그러면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웠는가? 성령님께서 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양육시키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가? 하는 등의 교회의 비전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딱 비전은 다 헛소리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비전은 무엇이나?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있다.

따라서 교회의 비전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우리 할 일이 아주 분명해지고 그리고 확실해 지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나?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것이다

죽어가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버려진 한 영혼을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초점은 이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는 어떤 비전이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방가르드, 전위대다

그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 구원도 이야기 하셨지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고 외면하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예요.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안하면 시간 낭비를 해요 에너지 낭비하죠? 물질 낭비하죠?

다 우왕좌왕,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다가 죽을때가 되면 정신차리고 돌아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세월을 교회가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원을  
하나님의 비전의 초점을 우리가 함께 다 모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신 비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비전, 성령께서 한  
영혼을 어루만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비전,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전부 다 여기에 연관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특히 신약에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병든자 귀먹은 자, 앓은뱅이 뭐 문둥병자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인간의 모습을 다 합성하면 죄인의 한 모습이지요  
이걸 다 합한 것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다 뭉쳐진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켜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 **교회와 목회의 초점인 전도. 선교.**

따라서 교회는 영원히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전도하는 공동체로 남아있어야 하고  
전도는 교회가 할 일종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자체가 전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되요. 목회의 초점은 전도에 있다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걸 개인적인 전도조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이 땅을 떠나서  
외국땅으로 가서 하는 전도나 선교의 본질적인 용어(?)는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썩어진 것을 부패한 것을 다 막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교회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비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다. 어떤 높은, 큰 비즈니스하는 것도 우리의 궁극적  
비전이 아니예요 결혼도 우리의 비전 아니예요 의사가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목사도 우리의  
비전 아니예요.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 비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목사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 되는 것이다.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목사만큼 얼마든지 자기 은사에 따라서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요즘은 목사될 사람 제가 말리고 다니는 입장입니다

왜 그 좋은 직장을 놓고 목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직장에서 전도하지

당신이 그 직장에서 나오면 그 직장은 누가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당신은 그 직장에 두었고 그 은사를 두었고 그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가야 할 사람은 꼭 가서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되는 거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되는것도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목사로 변화시키던 평신도로 변화시키던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성령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이 명확하게 정리되길 바라고 그것이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내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말이죠

우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는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성숙한 평신도들을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게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터 - 가정과 직장**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터가 두곳이 있어요

가정과 직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가정사역위원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것인가?

여기에 교회는 전심전력을 해야 해요

또 하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직장을, 직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됩니다

내가 매일 다니는 직장,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안 변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흩어져야 한다. 파송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교회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구원받고 예수믿고 여기서 안주하고 산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만명, 이만명, 십만명이 된들 세상은 안 변합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의 왕국을 만들뿐이지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이 내 선교지요, 우리의 직장이 내  
 선교지요 나는 안수, 저기 뭐야 Licence 없는 목사요, 신학교 안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목사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교사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배력이 아니라 영향력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지배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부하에 두느냐가 아니라  
말이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거죠  
교회가 그 시대에 끼치는 영향력,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끼치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작업,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 **사랑도 목회도 단순한 것 - 진리는 단순한 것**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랑이 단순하잖아요. 사랑이 복잡하면 괴롭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대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 또 사랑하잖아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웃음)  
단순한거예요 단순한 거.  
진리는 단순한 것이예요.

목회요? 단순한거예요 아주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갈등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 병든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  
수가성의 한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 귀신들린 여인을 교회가 껴안고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 **\*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럴수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을 껴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예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꼬옥 껴안고 사는 것이죠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존재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그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존재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론, 이런 교회본질, 교회비전, 그것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성령의 비전,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의 비전,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이 곧 누구의 비전입니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 비전 statement를 정리하라.**

그렇다면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나는 여러분들에게 비전 statement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얘기를 완전하지 않지만 정의를 해야 해요. 정의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철학, 비전 statement를 자기가 정리해야 해요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 비전이 이끄는교회, 이런 정리를 해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다  
우리는 성경중심의 교회를 한다 복음중심의 교회를 한다. 우리는 선교중심의 교회를 한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예수 문화로 바꾸길 원하는 교회가 된다. 이런 그 교회본질에 가까운 그리고 내 교회와 우리의 은사대로 정리를 하셔야 해요

**비전의 단계**

누구의 것이 좋고 누구의 것이 나쁜거 없습니다. 각자가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들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지나다보면 그것이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지지요

**온누리교회의 비전의 단계**

우리 온누리교회도 지난 과거에 몇단계가 있었어요

처음단계는 교회 개척할 당시에는 몇사람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자훈련 열심히 했어요 젊은이들에 관심을 열심히 가졌어요 선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계속하니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귀만 큰 교회가 됐어요 머리만 큰 교회가 되더라구요  
모든 걸 다 아는데 손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날개가 없었고 교회가 뜨지를 앓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떠야 비행기입니다  
떴다 떴다 그러잖아요? 달린다 달린다 그러면 자동차지요  
날개만 있지 계속 달리는 건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예요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시간에 비행기는 떠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안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교회가 3,4000명 모일때였어요  
그때 또 내가 몸이 약해지고 쉬어야 했어요 그게 안식년이었어요  
그게 90년이었어요 5년만에 5년만에 교회는 3,4000명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쉬는 시간을 주시고 일년동안..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사역을 선포하라, 일년동안 저에게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년 돌아오자마자 우리 교회에서 성령사역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비전 statement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궤도 수정이 있어요  
자꾸 가면서 어떤 목표에 맞게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사역을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주셨을 때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성령사역에 대한 비전을 설명을 하고 같이 동의하시고 그리고 교회  
성령사역을 선포했어요 그 때 우리가 했던 것이 성령집회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거예요 저희 온누리교회 했던 집회치고 그때만큼 좋은 집회가 아마 없었을 정도로  
이 강대상까지 그때 휠체어타던 사람 일어나고, 실명했던 사람 눈뜨고.. 아 또 그때 성악가  
김영미씨가 아기를 못낳으시다가 그때 임신하지 않았겠요.. 그 집회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그 다음해부터  
놀랍게 젊은이들이 구름떼처럼 오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해예요 날개가 돋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령사역이 하나님이 기름부으셔서 계속 나갈 때 교회가 정말 걸잡을 수 없이  
부흥을 했는데 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은 곧 어떤 면에서 불안을 안겨줬어요  
너무 준비없이 커져가니까 우리들이 어쩔수 없이 했던 것이 기도운동이었어요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새벽기가 강조되었던 것이 그때부터입니다  
와서 무릎꿇고 기도하니까 안심이 되요. 기도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 자기를 보게 합니다. 자기를...  
내면의 성숙과 거룩을 하나님이 조명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교회가 중요한 본질은 거룩이다 하는 사실을 그 때 교회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나서 우리가 한 것이 이천만비전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우리에게 큰 덩어리,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천만 이에요 세상을, 미전도  
종족을 변화시키는게 그래서 우리는 젓먹은 힘까지 다 내서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이런 일에 일심으로 우리 교회가 갔습니다.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또 한 5년을 지냈는데 금년 2000년 들어오면서 하나님 또 우리의 새로운 방향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외선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정말 젓먹은 힘을  
다해서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은 우리들이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이 굉장히 혼돈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선교만 하면 될까냐? 기도원가서 기도만 하면 될까냐?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땅 교육문제가 있고 의료문제가 있고 정치문제가 있고 경제문제가 있고, 이젠  
통일이 지금 좋긴 하지만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눈감고 모른척  
할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21세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마음이 뭐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디캡을 돌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돌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을** 만들도록 하라 하는 이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우리 온누리교회 비전이 이천만 비전인데 내가 살고 있는 사회참여,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무시한다기보다 그냥 관심을 갖지 않고 선교만 강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궤도수정**을 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개혁해가면서 세계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게 보완이 되요. 보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요. 아 그래! 우리가 이걸 놓치고 너무 세계선교 세계선교 했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보냈지만 그러나 매일 우리는 우리 자녀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노조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세상의 이 시끄러운 것에 대해 세상사람들에게 맡겨만 놓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구나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주시고 궤도수정을 해주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피투성이가 될만큼 우리는 이 세상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이루고 세계선교에서도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큰 맥을 하나님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젠 저희 교회 경우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 영혼 구원 - 전도

그러나 제가 지금 선교를 하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남는게 두 가지입니다. 영혼구원.

교회의 영원한 비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초점, 내 존재, 목사가 되었건 안되었건 내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거죠.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통 일반 직장을 가졌거나 가정주부가 되었어도 이 목적은 당신과 나에게 동일하다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동이 있느냐?

주일날마다 새신자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 목사님 이사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저는 그 사람만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목사님 시간이 없을 텐데 미안해요.. 안미안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새신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데리고오시고 또 데리고 오시고 매일 그 사람 영혼은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사람속에 예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지옥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붙들고 구원하길 원하고 전도하길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길 원하고 하는 것이죠

## 교회

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라운드 없으면 개인전도를 해도 그 사람을 어디다 데려 놓을 데가 없어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돼요 절대 싸우면 안돼요. 싸우면 새신자가 안오니까... 어떤 이유로도 분열하면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대개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다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전도 때문에 헤어지는 교회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전도하자는 것 때문에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두파로 갈라져서 싸웠다는 교회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문제들가지고 흥분을 하고 너무나 군더더기같은 그런 안해도되는 문제들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붙들고 심각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갑니다

## 우리의 비전은 전도 -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비전은, 전도입니다.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결론이에요

교회의 비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건물과 구조는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데코레이션을 지닌.. 그들에게 편한 교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잘 믿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편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보고 십자가도 없다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제일 불편하셨던 분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십자가만 보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만 만나면 · 십자가 걸어라, 십자가 걸어라 왜 여기 십자가가 없느냐 '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 어머니 우리 교회는 저기 지붕 꼭대기 십자가 있습니다 ' 하고 말씀드렸더니.. · 누가 보냐 그걸 ? ' 하시더군요.(웃음) 저희 어머니때문에 몇 년을 시달렸습니다. 십자가 안한다고.. (웃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점.. 거기까지 배려한 것입니다. 교회 디자인에 있어서 의자 컬러 하나까지 (제가 원래 디자인에 관심 있는 면도 있지만 그런 점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야 여기도 좋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점까지 배려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바꿀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 극장같네요..' 라고요. 전 성공한거예요. 교회 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성공한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수 있을까? 이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리더십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목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직장에 와서 설교해 달라고하면 저는 두말 않고 가시라고 합니다. 외무부에 가서도  
설교하시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 이 직장 저 직장 가면서 전도하는 까닭은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을 변화시켜야 된다. 가정을 변화시켜야 된다. 직장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비전이 있어요

###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또한가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본질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두기동인  
말씀과 성령에 철저히 의지해야 해요. 나는 이 말씀과 성령을 두 날개라고 봅니다. 이것이  
똑같이 날개를 쳐야 합니다. 한쪽만 날개 치면 한쪽만 강하면 뱅뱅 돌게 되어있어 말씀과  
성령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의 균형적 강조 이것이 건강한 교회 두날개가 같은 각도에서 같은 속도룩 날개를  
치면 비상을 합니다. 말씀과 성령.

### **교회의 영원한 원천은 기도다**

우리교회가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라고 제가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보다 감절을 더 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최우선의 전략은 전도이다 선교다

이런 분명한 목회철학, 이런 여러분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 성령님과 동일한  
비전, 하나님과의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누가 뭐라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해도 이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받은 평신도들이 가득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비전,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비전, 전도하게 하는 성령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